

5·14 미중 정상회담의 평가와 한국에 대한 함의: 미중 간 휴전 연장과 CRINK의 연대에 대한 고찰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 중국연구센터장

[기획자 註]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당시 양 강대국이 논의하였던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기존 국제질서에 가장 도전적인 이른바 CRINK 연대의 향방을 전망함으로써 한국 외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서론

2026년 5월 14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심화되어 온 양국 간 구조적 갈등을 다시금 일시적으로 봉합한 ‘전술적 휴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10.27-11.1)를 계기로 10월 30일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카드와 협상 전략이 부재했던 미국은 당시 사실상 ‘휴전’을 택했었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열린 G2 정상회담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주도할 마땅한 카드 없이 호르무즈 사태의 부담까지 어깨에 메고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본다면 ‘전술적 휴전’의 재확인인 이미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였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후로 알맹이 없는 “낫싱 버거(nothing burger)” 회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다.¹⁾

반면 5·14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사뭇 대조적이다.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들은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建设性战略稳定关系)’의 제안 및 미국의 동의를 통해 이를 “미중관계의 새로운 정립(中美关系新定位)”으로 평가했다.²⁾ 또한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을 방문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5월 20일), 파키

1) Editorial Board. “US-China Summit May Be a Nothingburger. Good.” *Bloomberg* (May 7, 2026); Robert Kuttner. “Trump’s Nothingburger Banquet in Beijing” *The American Prospect* (May 15, 2026); Damien Ma. “Trump and Xi Are Angling for Three Years of Stabilit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y 28, 2026).

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就美国总统特朗普访华情况答记者问” (2026年5月15日).

스탄의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총리(5.25),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5월 25일)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을 방문하는(6월 8-9일) 등 주요 우방국들과 연대를 다지는 발 빠른 외교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CRINK 연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2.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과 평가

5·14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피할 수 없는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갈등의 관리와 각자의 이익을 조율하기 위해 주요 의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가능한 접점을 찾는 자리였다. 하지만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공동 성명 또는 공동 기자회견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올해 9월 24일에 미국으로 초청한 모습은 이번 회담의 결과가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번 논의 일정을 정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시진핑 회담 이후 양국이 각각 발표한 공식 입장의 초점이 서로 다르고 일부 주요 의제에 대해 모호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미중 양국간 주요 현안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크다고 평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

2-1. 미국의 주요 의제와 중국의 대응

약 9년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와 산적한 국제 현안을 조속히 타개해나가는 모습을 미국 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을 통해 대중 무역 적자를 축소할 방안이 필요했으며, 특히 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과 원유 및 천연가스의 수입,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설립,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활동 여건 제고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의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이 이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보다 미약했다. 먼저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의 유예를 다시금 확인한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5·14 미중 정상회담의 팩트 시트(이하 Fact Sheet)에 의하면 500대를 기대했던 보잉사 항공기 구매는 200대에 머물렀다. 또한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해당 구매 물량은 2025년 10월에 합의했던 대두의 구매 약속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국이 기한이 만료됐던 미국 소고기 시설 400여 곳의 등록 갱신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의 중국 시장 접근을 회복시켰으며 미국산 가금류 수입 재개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³⁾ 하지만 이러한 모든 중국의 약속은 올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의 결과를 포함하여 향후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어떻게 이행할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3)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May 17, 2026).

이란 관련 현안에서도 미국은 Fact Sheet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으며,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5·14 미중 정상회담 관련 문건에서는 이란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인 대응 이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두 지도자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국제 및 지역 현안들에 대해 시각을 교환했다고만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⁴⁾

2-2. 중국의 주요 의제와 미국의 대응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동안 텐탄(天壇) 공원 참관, 국민만찬, 중난하이(中南海)에서의 산책, 차담(茶談), 그리고 오찬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진한 예우를 제공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놓인 주요 현안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관계의 새로운 정립 및 대만 관련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려 했다.

중국은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제안을 통해 안정적인 미·중 경쟁과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한층 대등해진 양국관계를 대내외에 알리려 했다.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중 사이에 논의가 이어지겠지만, 미국이 Fact Sheet를 통해 이에 동의를 밝힌 점은 중국에게 고무적인 성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미중관계의 재정립은 중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많은 의미를 던질 수 있다. 2026년에 들어 미국은 1월에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 부부 체포 및 친미 정부의 수립, 그리고 2월에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을 개시하며 물리적 수단을 사용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중국에게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와 중동의 전략적 교두보 국가이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관심은 중국의 대응에 모아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을 위해 정치·외교적 지지 및 경제적 지원에 한정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군사력의 원거리 투사와 힘을 바탕으로 한 중재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과 ‘국가방어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하 NDS)’를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에 각각 발표했다. 이들 국가 전략서에는 미국의 본토 방어(Home Defense)와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쿠바와 브라질을 포함해 중남미에 위치하며 미국에 비판적이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우려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다질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한층 대등해진 미·중 경쟁과 협력 관계를 대내외에 알린 것과 함께 러시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북한과의 연이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은 중국과 우방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同美国总统特朗普会谈”(2026年5月14日).

다른 한편으로 대만 관련 현안은 중국에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 독립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및 대만으로부터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등 대만 관련 현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은 5·14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이며, 미중 관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사안임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대만 관련 현안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무런 대답 없이 듣고만 있었다고 언급했다.⁵⁾ 트럼프 대통령의 무응답 대응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부하며 대만 정책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현안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직후 대만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누군가가 독립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I’m not looking to have somebody go independent)” 고 언급했다.⁶⁾ 이는 미국이 중국의 요구대로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과 동시에, 중국 관방 언론들을 이를 대만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로 해석하는 대조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⁷⁾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길에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중국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으로부터의 무기 수출을 중국에 대한 “매우 좋은 협상 카드(a very good negotiating chip)” 로 언급했다.⁸⁾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2월에 11조 달러 분량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며, 미국 의회는 2026년 1월에 대만에 대한 14조 달러 분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 카드가 부족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대중국 협상카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만 무기 수출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는 후퇴한 모습이다. 미국은 1982년의 ‘6개의 약속(Six Assurances)’ 중 하나인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과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The U.S. has not agreed to consult with the PRC on arms sales to Taiwan.)’ 를 견지해 왔다.

5) Amer Madhani, Will Weissert and Simina Mistreanu. “Trump weighs Taiwan arms package after summit aimed at steadying US-China ties” *The Washington Post* (May 15, 2026).

6) Tessa Wong. “Trump told Taiwan not to ‘go independent’ - but does it want to?” *BBC* (May 19, 2026).

7) Shen Sheng. “Trump reportedly warns Taiwan island not to expect a ‘blank check’ from US military, ‘not looking to have somebody go independent’; expert says separatist forces are left behind by broader trend” *Global Times* (May 16, 2026).

8) Simina Mistreanu. “Trump’s description of Taiwan as a ‘good negotiating chip’ with China raises anxieties” *The Washington Post* (May 16, 2026).

3. 5·14 정상회담 이후의 미중관계 전망

앞서 살펴본 대로 5·14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협상의 우선순위에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미·중의 제한적 합의는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다.⁹⁾ 이제 미·중은 서로의 전열을 정비하고 9월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합의되었지만, 물밑에서의 긴장과 견제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원치 않는 중국과의 대립을 방지하고, 산업, 군사, 기술, 지정학적 영역에서 자국의 대중국 지렛대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지려 할 것이다. 중국 역시 대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자국의 국력을 증진시키며 향후 미국의 전략적 공세에 대한 준비를 공고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¹⁰⁾

하지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중국이 우세한 협상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구매를 약속한 보잉 항공기, 대두 수입 등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미국 사회에 보여줄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1월까지 중국이 협상의 칼자루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중국 협상 카드가 많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수출 사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만 관련 사안의 협상 카드 활용은 역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가지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은 2025 NSS 및 2026 NDS에서 언급한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을 포함한 제1도련선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균형과 억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역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집단적 방어(collective defense)’와 ‘부담공유(burden sharing)’를 통한 역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¹¹⁾

반면 중국은 구매 약속의 실행 속도를 조절하며 미국과 무역 협상 및 대만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중간선거의 요인과 함께 중국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또 하나의 동력은 대미 자신감의 상승이다. 2025년 10월 및 2026년 5월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협상력과 자신감이 높아진 것은 중국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가해왔던 전략적 압박에 저항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증가시켜 왔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대등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며 결국 미·중 간 휴전을 이끌어 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태도가 완화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로 한층 대등해진 양국관계를 확인하게 되었다.

9) Kyle Chan, Jonathan A. Czin, Ryan Hass, and Patricia M. Kim. “What Beijing got from the Trump-Xi summit” The Brookings Institution (May 22, 2026).

10) Frederick Kempe. “The myth of US-China stability” The Atlantic Council (May 13, 2026).

11) U.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2025), pp. 19-24; U.S.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3, 2026), P. 4.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역내 안보 네트워크의 강화 가능성에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CRINK 연대 강화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은 5·14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미국의 주장과 요구에 제한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직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및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역을 담당하는 파키스탄의 세바즈 샤리프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이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의 CRINK 연대 강화에는 전략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만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집단적 방어’와 중국의 CRINK 연대가 점차 구체화 된다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본격적인 국제질서의 신냉전 인식과 진영화 구도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말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창설을 제안하고, 2025년 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Takaichi Sanae)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그리고 이어진 중일관계의 악화는 역내 신냉전 및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또 다른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이 계속해서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다. 조속한 신냉전과 진영화 구도의 부상은 중국에 비해 미국이 가져가는 전략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연설,¹²⁾ 2023년 3월 및 2025년 5월에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¹³⁾ 그리고 2026년 9월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계속해서 냉전사유(冷战思维) 및 진영대항(阵营对抗)에 반대한다고 언급해왔다.¹⁴⁾ 따라서 중국은 일정 수준의 CRINK 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신냉전 및 진영화 구도의 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자간 연대는 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양자 차원에서의 CRINK 간 협력과 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 한국의 대응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공고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필요하다. 5·14 미·중 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Fact Sheet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비핵화가 공유된 목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중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은 한국에게 군사·안보적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중국과의 산업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

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第十七次峰会第一阶段会议上的讲话(全文)” (2022年11月15日).

1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23年3月22日);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全球战略稳定的联合声明” (2025年5月8日).

1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在上海合作组织成员国元首理事会第二十五次会议上的讲话(全文)” (2025年9月1日).

스럽게 이들 국가들은 미·중의 대립과 갈등의 고조에 대해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전술적 휴전’은 한국에게 전략적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은 2026년 9월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과 11월의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현안 일부가 타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긴장은 오히려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먼저 대미 및 대중정책의 기본 틀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의 증진’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대외정책은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 별 유연한 전략적 위치 조정을 통해 실용외교에 바탕을 둔 국익 확대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 자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확립, 산업 공급망의 다변화 모색, 그리고 한국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가치를 포함한 국익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별 구체적인 한국의 대응 방안 수립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지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과의 마찰 발생 시 국내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고 한국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둘째,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한국 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강대국의 ‘전술적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동맹 및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강(自強)’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내부적 논의 및 실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지속적인 ‘공급망 다변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견제가 언제든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 그리고 주요 산업 재료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민관이 협력하며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략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대미 및 대중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미·일·중·러 중심의 강대국 양자외교는 물론, 이에 더하여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다자외교를 통해 EU, ASEAN, 중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및 주요 현안 별 국익 중심의 다자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미·중 사이의 민감한 현안들을 한·미 및 한·중 양자관계 차원이 아닌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풀어나가는 외교적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김한권

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정치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를,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했다. Post-Doc과정을 중국 칭화대(清華大)에서 마치고, 북경대(北京大) 국제관계학원에서 연구학자를 지냈다. 이후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겸 중국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국방부, 통일부, 산업통상부(통상정책자문위),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의 정책 자문위원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국제협력분과위)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적극적 완충국가론과 북중관계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1호 2025년(봄) 통권 128호 (KCI); “한중 외교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2호 2022년(KCI); 「미중 전략적 경쟁」 (공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관계연구시리즈 36 (서울: 페이퍼로드, 2020); “Evaluating China’s Soft Power: Dimensions of Norms and Attraction” in Jae Ho Chung eds. *Assessing China’s Power* (Palgrave Macmillan, 2015) 등이 있다.

2026년 6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